다시 만난 '우리의 봄'…소상공인 '나눔의 봄'

광주·전남 파면 기념 이벤트 다양

자영업자들 민주주의 회복 축하
술 공짜에 한달간 커피 50% 할인
광주 독립서점 모든 책 5% 할인
식당선 손님 100명에 무료 점심
집회 시민 위해 '518잔' 선결제
"파면 정식 먹었다" 밈도 확산

헌법재판소가 4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일상의 복귀를 기념하며 민주주의의 회복을 축하하는 무료 나눔·할인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소규모 점포를 운영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내수 침체의 터널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자는 의미를 담아 '파면 축하' 현수막을 내걸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12·3 계엄 당시 이어졌던 선결제 열기도 이어졌다.

광주시 동구 구도심 커피 전문점은 탄핵 기념 한 달 50% 할인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광산동에 위치한 캐스퍼 커피 문화전당점은 오는 30일까지 '진짜 봄이 왔어요' 할인 이벤트를 열고 4월 한 달간 모든 음료와 빵류를 대상으로 50%를 할인해 판매한다.

김대로(44) 캐스퍼커피 대표는 "5·18 민주광장 바로 앞에서 영업을 하면서 광주 시민들의 거대한 열망을 120일 넘게 실감해 왔다"며 "할인으로 일시적인 매출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화라는 대승적 흐름에 이렇게나마 동참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이라고 했다.

동구 충장로에 위치한 '소년의 서'라는 예술서점도 '오늘은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이라며 '윤석열 파면 축하 기념 전 도서 5% 할인' 행사에 나섰다. 서점측은 당초 탄핵 당일 진행하려던 행사를 5일까지 연장했다.

임인자 대표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주인공들을 위해 거리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 모두를 위해 책방지기가 작은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했다.

음식점 등 식당에서도 탄핵 기념 이벤트가 잇따랐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목사골농장 최종천(57) 사장은 탄핵 결정이 이뤄진 4일 식당을 찾은 손님 100여명에게 무료로 점심 특선을 제공했고 광산구 월곡동 우와돈고기백화점도 '윤석열 파면하는 날 소주·맥주 공짜' 현수막을 내걸고 손님을 맞았다.

5·18 이후 40여년 만에 이뤄진 위헌적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심판이라는 점에서 한 시민은 122일간 집회 현장을 찾은 시민들을 위해 커피숍에서 '518'잔을 선결제해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자신을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이라고 밝힌 곽귀씨는 동구 두껍베이커리에서 518잔의 커피값을 선지불했다.

전남에서도 탄핵 축하 이벤트가 연이어 진행됐다. 광양 장성금생초국밥은 4일 '오늘 술 공짜' 이벤트를 내걸었고 순천 고깃집 황금우돈은 '윤석열 파면 축하 소주와 맥주 1+1' 이벤트를 오는 10일까지 진행한다.

온라인에서도 탄핵 기념 딸기·의류 할인 판매 등이 이어졌고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파김치와 잔치국수를 곁들인 '파면 정식'을 먹었다는 '밈'도 확산하고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기념해 식음료 나눔을 진행하는 동구 캐스퍼 커피 임직원들.

인문사회과학 예술서적 서점인 '소년의 서'가 대통령 탄핵을 기념해 제작한 입간판.

光州日報, 윤석열 파면 호외 발행

"국민이 이겼다"

광주일보사가 4일 발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관련 호외의 반응이 뜨거웠다.

이날 광주일보사는 2개면으로 구성된 호외를 1만부를 제작, 4일 낮 12시 발행했다.

1면은 '윤석열 파면…국민이 이겼다'라는 표제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모습과 이제는 전 대통령이 된 윤석열의 생생한 표정으로 채워졌다. 지면에는 시민들이 어떻게 탄핵을 이끌어냈는지를 되짚고, 앞으로의 사회 통합과 민생 회복, 6월로 예상되는 차기 대선에 대한 전망도 함께 실었다. 전국적으로 퍼진 환호의 순간들을 조명하며 "민주주의 승리의 날"을 기록했다는 평가다.

2면에는 이날 오전 생중계가 이뤄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과 서울 헌법재판소 앞 시민들의 반응을 전했다.

동시에 현장의 환호성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뉴스와 쇼츠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기도 했다.

호외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높은 관심을 모았다. 한 독자는 '기념으로 가져왔다'며 지인 단톡방에 호외 사진을 공유했고 제보톡방엔 "호외만을 따로 구매하고 싶다"는 요청도 이어졌다.

광주일보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안 가결 당시에도 4면짜리 호외를 발행해 1면 '윤석열 탄핵…국민이 이겼다', 3면 '비상계엄서 탄핵 가결까지' 등 주요 흐름을 정리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4일 새벽 2시에는, 전날 밤 선포된 비상계엄을 다룬 '비상계엄에 민주주의 멈췄다' 호외도 긴급 제작한 바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지난 4일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하남산단 인근에서 시민들이 광주일보가 발행한 호외를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尹 파면에 6월 3일 모평 일정 변경되나

조기 대선 날짜와 겹칠 가능성…의대 정원 불확실성도 여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의대 정원은 물론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 날짜까지 변화가 불가피해 수험생들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6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조기 대선으로 애초 예정됐던 6월 모의평가 일정 변화가 예상된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는 현행법상 대통령 선거일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가 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6월 3일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가 3일 예정돼 있어 변경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평가는 6월과 9월 두차례 치러지는데, 6월 모의평가의 경우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전 치러지는 유일한 모의평가로, 수능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활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험이라는 게 교육계 시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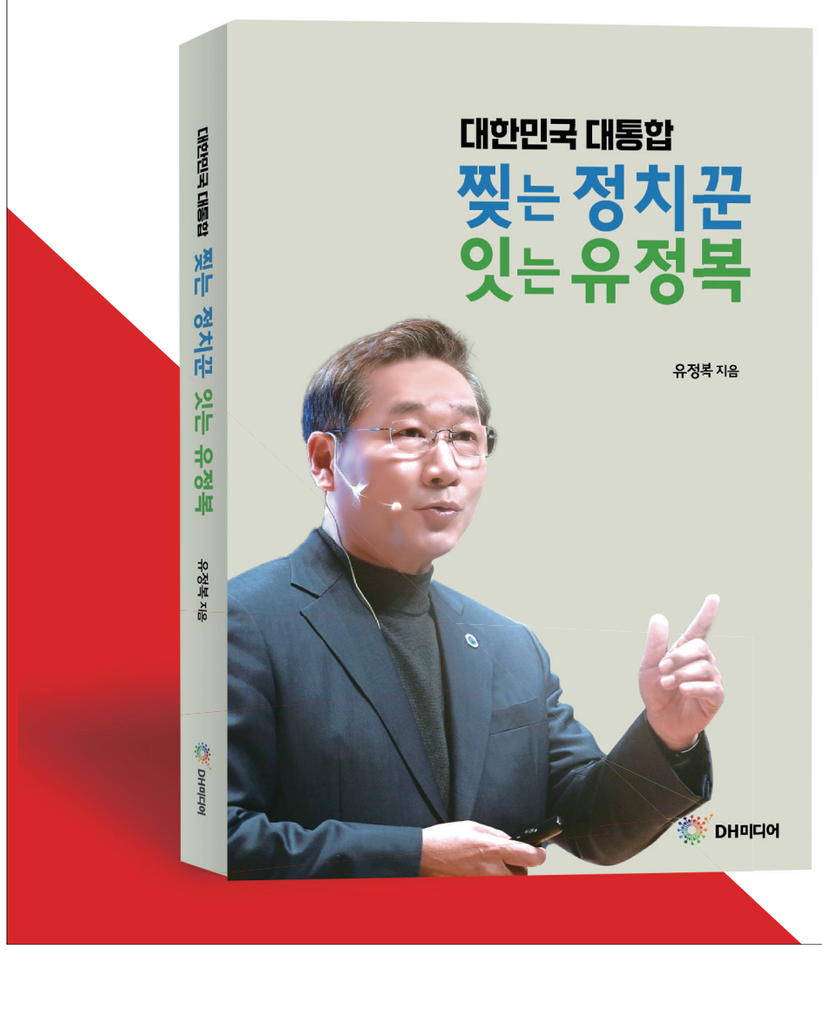
일단 대선 투표일과 6월 모의평가는 동시에 치러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과 6월 모의평가 날짜가 겹치면 유권자인 수험생이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한다고 해도 자칫 1학기 기말고사 일정에 너무 가까워지는 데 따라 고3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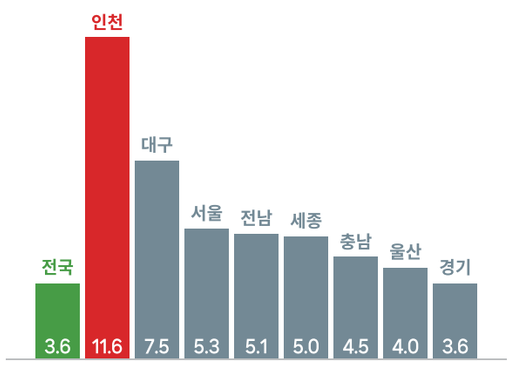
의대 정원(모집인원)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아갈 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어떻게 이뤄질 지 안갯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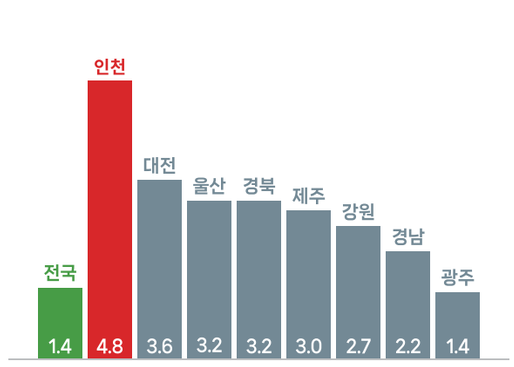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천원주택
인구도 잡고 경제도 잡았다!



출생아 수 증가율(%)



실질경제성장률(%)

(2024.1.~12.기준) (2024년 통계청 공표자료)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